

ITU의 세계통신서비스무역에 관한 보고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최근 통신분야에 관련된 세계시장동향을 분석한 내용과 다양한 부문시장들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편집자 주>

김영환 조사연구실 팀장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97년판 「세계전기통신발전 보고서(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했다.

「통신무역(Trade in Telecommunications)」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ITU 통신개발국(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과 전략계획반(Strategic Planning Unit)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지난 97년 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끝났던 '기본통신에 관한 WTO위원회 의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s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통신분야에 관련된 세계 시장 동향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다양한 부문시장들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통신서비스시장은 1990년 400억 달러 미만 규모에서 1995년 600억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렇지만 최근까지 통신서비스 무역 기회는 통신기기 무역에 비해 국영 독점서비스 규정을 고수한 정부제도로 인해 한정되어 있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시장개방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로써 국제 서비스 무역 분야가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국가를 초월한 서비스 제공, 자본 참여, 해외 소비, 인력 이동 등 통신서비스 무역의 네가

지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서비스의 공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전화통화에 대한 사용시간기준으로 보면, 매년 15%의 증가율에 힘입어 1975년에 4억초 미만 수준에서 1995년에는 60억초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국제전화에서 53억달러의 영업이익이 발생되어 세계통신서비스 시장의 8.7%를 점유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통신서비스무역의 두번째 중요한 수단으로 직접적인 자본참여를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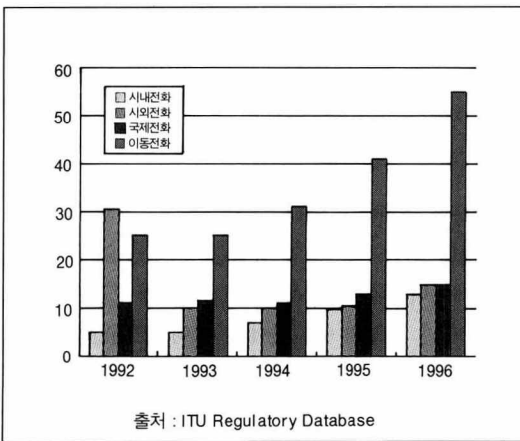
현재 해외투자기회는 해외투자자들이 민영화된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지역 자회사의 설립, 또는 합작기업에 참여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추가 사업자의 사업 자격과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소비자 인력 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통신서비스의 교역 비중이 현재는 미미하지만, 콜링카드(Calling Cards) 또는 이동통신로밍서비스(Mobile Roaming)와 같은 신규 서비스의 수요 확대와 통신 상담 활동이 증가함으로써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통신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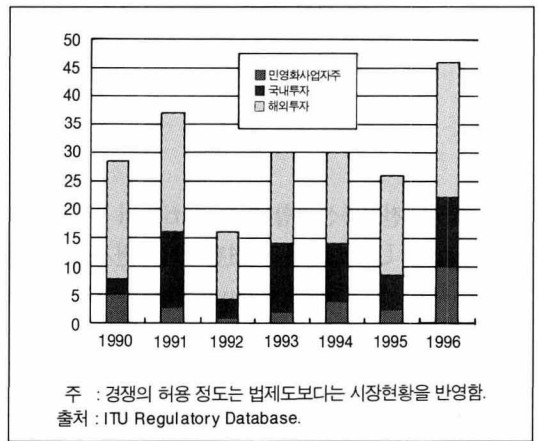
1995년, 전체 통신 분야에서 788억 달러의 매출 실적을 올렸는데, 그 중 약 75%가 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하였으며, 25% 정도는 통신기기 판매로 이루어졌다.

〈그림 1〉 부분시장별 통신서비스 경쟁 허용 국가수



통신서비스는 1992년부터 성장에 호조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실질 매출에서 7%대의 신장세로 접어들었다. 〈그림1, 2〉의 도표는 통신 분야가 세계 경제 성장률의 두 배 정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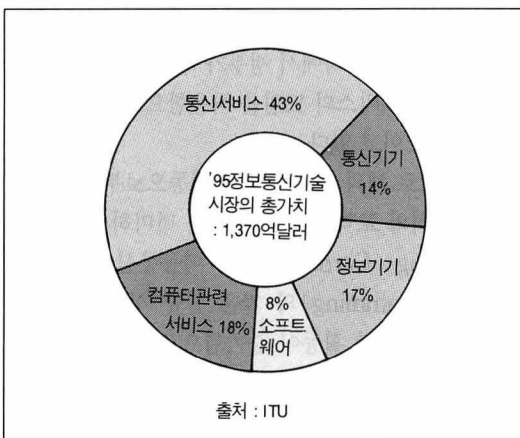
〈그림 2〉 통신 민영화 사업자 규모



집중에 의한 신규 서비스 수요의 창출

정보통신기술이나 정보통신 등의 통신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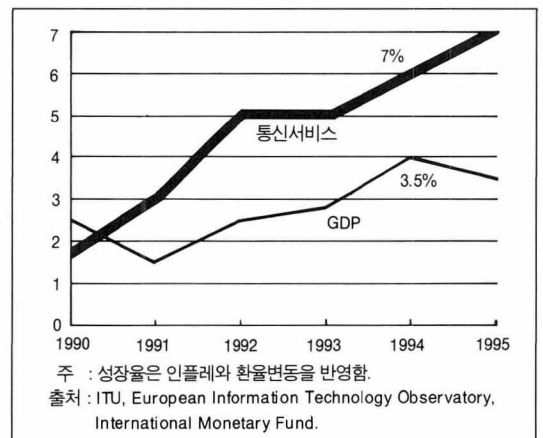
〈그림 3〉 통신산업 부문별 비중



1995년 기준으로 약 1,37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대 산업이다. 〈그림3, 4〉

컴퓨터와 방송 부문이 포함된 통신 분야로의 집중

〈그림 4〉 연간 실질가치 변화



은 매년 두 배씩 성장하는 인터넷에서 확실히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1997년 초반에 약 1천 6백만대의 호스트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고 이 보다 많은 5천만명의 사용자들이 있었다. 오히려 인터넷의 의미는 현재 보다는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 대한 중요해 질 것이다.

인터넷은 21세기 전자거래를 위한 무대에 놓일 “세계적인 정보 허부구조”의 한 전형이 될 것이다. 96년 한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거래의 가치는 약 1억~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WTO 조약의 함축적 의미

보고서는 최근 WTO에서 채택된 결정이 더욱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 첫째, WTO협정의 기초 내에서 제안이나 서약을 만드는 국가들이 전세계시장의 대다수(총소득의 약90%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이지만 커다란 영향력을 산업 전반에 걸쳐 행사하게 될 것이다.

○ 둘째, WTO협정이 다자간 조약과 제안의 일부로 협의되어 왔고 그 서약이 정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국가들이 시장자유화를 위해 동일한 속도와 보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보다 빨리 개혁을 시도한 국가들의 경험은, 일단 개혁이 시작되면 과점 유지 또는 외국인 소유 제한과 같은 부적절한 방어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보고서는 아직까지도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협정을 맺지 않았거나 단지 시장개방의 최소 수준만을 조건으로 내세운 국가들에 의한 위협을 검토하고 있다.

주된 위협은 이러한 국가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금을 보유한 음성적인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 국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야만 한다.

향후 몇 년 내에 수많은 국영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민영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게 기간시설투자를 앞지르게 될 것이다. 만일 시장자유화에 구속력 있는 서약을 갖춘 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중 한 국가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면 많은 투자자들은 당연히 전자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제통신무역을 위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국제적인’통신과 같이 막연한 표현을 쓸 수 밖에 없었던 기존의 패러다임은 국가들간의 쌍무적인 국제관계에 근거를 두었다. 이러한 국가들의 독점사업자들은 국제서비스에 관한 연대 규정에 의거해 협력했다.

기존 패러다임의 붕괴는 더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이유보다, 전체적인 미래상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새 패러다임은 세계적 경쟁을 근거로 하고 있고 통신설비와 서비스가 현재 다각적인 구조에서 교역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통신환경은 일 대 일의 세계에서 다수 대 다수의 세계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 대 국가의 교역에서 기업이나 개인들간의 상호교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